

‘문화가 숨쉬는 순창’ 기반 마련

순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 주민설명회 24일 개최

순창군이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 주민 설명회를 오는 24일 11시 향토회관에서 연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순창군이 ‘문화가 숨쉬는 순창’ 달성을 위해 문화공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민선 7기 공약사업중 하나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은 기존 문예회관이 지어진지 20년이 넘어 시설이 노후화되고 무대규모가 작아 대규모 공연유치에 애로사항이 많고, 점차 문화공연에 대한 주민들의 눈이 높아져 전

문화된 공연장 조성이 필요해 추진하게 됐다. 특히 최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주관한 향토회관 건축물 컨설팅에 참여한 전문가는 주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공연장 규모를 확대해야 하나, 건축 구조적으로 확장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었다. 여기에 무대 부속시설 등이 미비해 비용 대비 효과가 저조한 만큼 현재 규모에서는 소공연장 등 다른 특화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

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더욱이 지난해 10월 민선7기 공약사업 공청회에서 종합문화회관 건립 사업 찬성률이 88.8%를 차지해 신규 건립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중 하나다. 군은 기존 향토회관 위치를 벗어나 새로운 부지에 넓은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생활 SOC 사업과 복합화하는 것으로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아울러,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는 오케스트라, 뮤지컬, 콘서트, 국악, 연극 등 수준 높고 완성도 높은 전문 공연 위주로 운영하면서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수공예 아카데미’ 수강생 30명 모집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수공예 산업발전과 인력양성을 위해 오는 9월 3일부터 11월까지 10주간 수공예 또는 디자인 관련 학과 졸업생과 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제3기 전주 수공예 비즈니스 아카데미’를 진행한다. 17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인 이번 아카데미는 2017년부터 아카데미 교육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총 8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바 있다. 전당은 교육 완료 후 수료생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3기 아카데미에서는 수공예 종사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커리큘럼을 추진할 방침이다. 총 10강으로 구성된 아카데미는 오리엔테이

션과 특강을 시작으로 10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전당 4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아카데미에는 문운걸 예원대 문화영상창업대학원 교수의 특강을 시작으로 보머스디자인 진효승 이사를 비롯해 남궁선 짜임공예디자인 대표와 박마태오 모홀 대표, 양재원 파운틴스튜디오 대표가 참여한다. 또 박용석 DPA 대표, 유연정 사람과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대표 등도 함께해 국내 유수의 강사진들이 현장경험을 통한 다양한 강의를 벌일 예정이다. 아카데미는 교육 완료 수강생들에게 수료증을 발급하며, 교육 후 현장 워크숍을 통해 다

양한 수공예 상품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수강생은 오는 8월 5일부터 16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 또는 팩스 직접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문의는 공예진흥팀(063-281-1572)으로 하면 된다. 수강생은 30명을 면접을 통해 선발하며 교육비는 10만 원이다. 김진태 원장은 “이번 아카데미는 현 수공예의 트렌드를 이해하고, 디자인 개발과 마케팅 등 수공예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다양한 사례와 현장 경험에서 나오는 교육을 통해 많은 것을 얻고, 수공예에 대한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태권도원에서 ‘공연’ 하세요”

태권도진흥재단, 지역과 연계한 문화예술 사업 추진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 이하 재단)은 ‘2019~20년 한국관광100선’에 선정된 ‘태권도원’에서 음악 및 퍼포먼스 등의 문화예술 공연을 진행할 개인 및 단체의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지역 연계 문화사업은 ‘태권도원 열린 문화마당·태권도원 유희’(이하 ‘태권도원 유희’)로서 태권도원 인접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공연을 선보일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태권도원 유희’는 27일과 28일, 8월 10일과 11일, 8월 17일과 18일 등 1박 2일씩 총 3회 진행되며 각 회별 4회(토요일 2회, 일요일 2회)의 공연을 진행 할 수 있다. 특히, 토요일 야간 공연은 태권도원 도약센터 앞 잔디마당에서 진행할 예정으로 태권도원의 시원한 밤하늘 아래에서 관객들과 하나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단은 ‘태권도원 유희’에 참가한 공연자들에게 재능기부증서를 발급하고 태권도원에서의 숙박과 식사, 그리고 소정의 참여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예술 공연 시간 외에는 태권도원 상설공연단의 태권도 시범공연 및 국립태권도박물관 관람 등 태권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상욱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문화예술인들에게 관광 명소인 태권도원에서 공연을 가질 기회를 제공하려고 한다”라며



“재단은 이번 성과를 확인해 문화예술인들과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한편, ‘태권도원 열린 문화마당·태권도원 유희’에 참가하고자 하는 문화예술인은 태권도진흥재단 및 태권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상황에 따라 접수는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전북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댄스페스티벌 개최... 도내 다양한 장르 10개팀 출연 경연

섬진강생활체육공원에서 21일 열려



제3회 전북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댄스페스티벌이 오는 21일 섬진강생활체육공원 야외특설무대에서 개최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페스티벌 공연.

사)임실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이사장 송병섭)이 주최하고 임실군이 후원하는 제3회 전북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댄스페스티벌이 오는 21일 오전 10시~오후 12시30분 섬진강생활체육공원 야외특설무대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임실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 소속 댄스동호회 3팀과 전북도내에서 다양한 장르의 댄스동호회 7팀이 출연해 평소 강습을 통해 훈련한 화려한 춤사위를 섬진강 야외특설무대에서 선보인다. 올해 3회째를 맞는 댄스페스티벌에는 전북도내 댄스동호회, 재즈댄스, 라인댄스, 방송댄스, 줌바댄스, 탭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동호회들이 출연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제5회 섬진강다슬기축제 기간에 함께 열려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과 전북도민들에게 재미와 함께 흥을 돋울 것으로 기대된다. 본 행사에 앞서 행사의 흥을 돋우기 위해 통울림과 북미와숙녀 댄스동호회, 한소리한무

단동호회, 무지개유물레, 달빛소녀타하모니카 동호회가 참여한다. 심민 임실군수는 “전북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댄스페스티벌이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의미

는 행사가 됐다”며 “다슬기축제장에 나오셔서 체험프로그램도 참가하고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 해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무더위 날려줄 ‘워터파크’ 20일 개장

국립전주박물관은 혹서기 무더위를 맞아 시원하게 여름을 즐길 수 있는 ‘국립전주박물관 워터파크 : 휴가와 피서를 박물관으로 오세요!’ 행사를 오는 20일부터 진행한다. 17일 밝혔다. 오는 9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매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전주박물관 야외마당에서 상설 운영한다. 먼저 더위를 가시게 할 신나는 놀이체험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게 물총 놀이를 준비했으며, 일반 물총은 물론 전문 물총인 대나무 물총까지 상비해 있어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이라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대나무 물총은 직접 만들어볼 수 있도록 체험 공간을 운영, 대나무를 이용해 전통 방식으로 물총을 제작한 후 기념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 여기에 풀장 튜브를 박물관 야외마당에 비치해 물총에 필요한 물을 구비하는 물론 물놀이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하루에 한 번

씩 물대포를 시원하게 쏘아 올릴 계획이다. 박물관은 야외 탈의실을 설치해 옷을 갈아입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안전 요원을 배치해 사고를 예방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는 쉼터의 공간도 박물관에서 찾을 수 있다. 박물관 야외 정원에 위치한 솔밭에 10여개의 해먹을 설치해 여유롭게 쉴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하고, 차양을 통해서 쏟아지는 햇빛을 막아 시원한 그늘을 선사한다. 또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걸을 수 있도록 박물관 입구에서부터 본관까지 대형 양산이 이어진 그늘 길을 설치하고, 박물관을 자유롭게 거닐 수 있도록 양산도 비치할 계획이다. 전주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고리타분하고 수동적인 박물관의 고정 이미지에서 벗어나 재미있고 능동적인 박물관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을 마련할 것”이라며 “체험과 편의 시설은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면서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